

이 책에서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와 맥도널드로 상징되는 미국문화의 무분별한 범람, 선진국 주도의 기후협약, 인간 게놈 프로젝트와 생물학 무기를 통한 테러(바이오-테러리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통한 감시사회의 등장 등과 같이 다채로운 소재를 통해 현미경을 들이댄 듯이 세세하게, 또 천체망원경으로 조망한 듯이 포괄적으로 세기말 지구촌 사회를 살펴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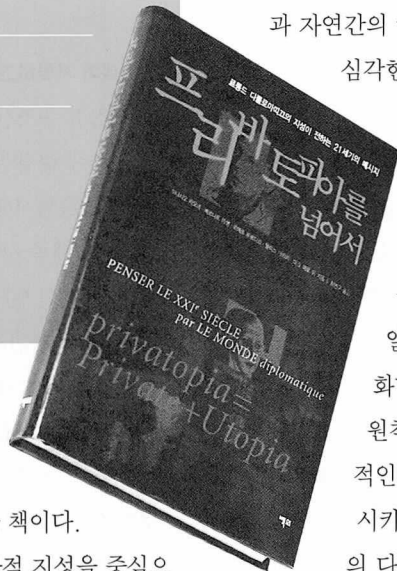
책갈피산책

## 《프리마토피아를 넘어서》

프랑스 지성인들의 21세기 전망

이나시오 라모네 외 지음 | 최연구 옮김  
백의/A5신/272면/15,000원

장세훈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가 편집하고 최연구가 옮긴 《프리마토피아를 넘어서》(백의)는 지구촌 사회의 현실을 비판적 안목에서 성찰하도록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꼼꼼히 곱씹어볼 만한 책이다. 피에르 부르디외, 펠릭스 가타리 등 프랑스의 비판적 지성을 중심으로 짜인 이 책의 필진은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인류가 직면한 '잿빛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암울한 현실 앞에서 좌절하기보다는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실천적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희망 찾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 지구촌 현실 비판적으로 성찰해

이 책에서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와 맥도널드로 상징되는 미국문화의 무분별한 범람, 선진국 주도의 기후협약, 인간 게놈 프로젝트와 생물학 무기를 통한 테러(바이오-테러리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통한 감시사회의 등장 등과 같이 다채로운 소재를 통해 현미경을 들이댄 듯이 세세하게, 또 천체망원경으로 조망한 듯이 포괄적으로 세기말 지구촌 사회를 살살이 살펴보고 있다.

먼저 이 책은 신자유주의 유행이 떠돌아다니며 자유경쟁의 시장 원리, 효율성, 수익성 등과 같은 추상적 원리에 입각해 인류의 삶을 제멋대로 재단하는가 하면, 소비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각국의 고유한 사회·문화와 융합하거나 '딱딱한' 정치이념이 아니라 영화·광고 등과 같은 '부드러운' 문화상품에 담기는 방식으로, '사욕(私慾)의 이

상사회(Privatopia)'를 전세계 곳곳에 건설하고 있는 데 주목하고 있다. 또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환상에 사로잡힌 채 순응주의, 정치적 무관심, 현실추수주의에 몰들어 사회적 실천과 연대의 토대가 무너져가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조지 오웰이 경고했듯이 '대형'(Big Brother)이 지배하는 감시사회가 출현하게 돼 개인적 사생활이 종말을 맞게 되리라는 진단도 제기되고 있다.

다음으로 지은이들은 평등사회의 도래를 노래하던 정보화가 창작의 자유를 앞세운 지적 재산권 보호 요구의 덫에 걸려 정보 접근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가 하면, 시장의 자유가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격차를 더욱 벌려놓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기후협약 과정에서 지구환경이 약탈당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인간과 자연간의 균형과 평화가 깨지고 이들간에도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경고한다.

### 보편성과 다양성의 조화 속에서 사회적 연대 결성해야

그러나 이런 현실 앞에 주저앉을 수만은 없다고 보는 까닭에, 이 책의 필자들은 이를 타개해나갈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 하나는 획일화의 논리를 돌파할 수 있는 보편성과 다양성의 조화다. 즉 인류 공동체적인 관점을 견지한다는 보편성의 원칙 속에서 각각의 사회, 각자 개인의 개별적이고 복합적인 발전을 용인하고 진작시키는 '차이의 윤리'를 확산시키고, 대중매체를 통한 균질화의 위협 속에서도 다수의 다원화된 주체성을 확립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불평등의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의 결성이다. 즉 일자리를 나누고, 빈국의 외채를 탕감하며, 사회적 소수의 목소리에 귀기울임으로써 공동체적 삶을 조금씩 일궈나간다면, 시장지상주의에 사로잡힌 신자유주의 이념과 현실에 대항해서 공공영역을 재탈환하고, 인류 공존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판적인 국제문제 전문 월간지'가 기획한 특집답게 이 책은 주변의 현실 문제에 급급한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넓혀줌으로써 '우물 안 개구리' 식 사고틀을 벗어나게 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월간지 연말/신년 기획 특집이 그러하듯, 이 책에서도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온갖 음식이 차려진 진수성찬에서 뭐가 딱 부러지게 맛깔스러운 음식을 찾지 못할 때와 같은 허전함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한편의 책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법. 이렇듯 '지적 갈증'을 촉발시켜 좀더 깊이 있는 독서와 사고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이 책의 '여백의 미'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

장세훈씨는 서울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20세기 한국을 돌아보며> <IMF이후 한국의 빈곤> <공저> 등을 펴냈다.